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작품론

플라스틱 컵을 소재로 한 회화적 표현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A retrospective representation of plastic cups
- Focusing on my works-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 술 학 과
김 정 원

플라스틱 컵을 소재로 한 회화적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섭

이 논문을 석사 학위 작품론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김정원

김정원의 석사 학위 작품론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하 원 (인)
심 사 위 원	김 섭 (인)
심 사 위 원	정 욱 장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교
미 술 학 과
2024년 2월

목 차

국문요약

I. 서론.....	p.1
II. 본론.....	p.2
1. 작품의 주제.....	p.2
2. 작품의 표현	p.2
2.1 이미지의 재현적 표현.....	p.2
2.2 배경을 이용한 상반된 표현.....	p.4
III. 결론.....	p.5
연구작품.....	p.6
참고문헌.....	p.19
논문도판 및 작품 목록.....	p.20

English abstract

국문 요약

플라스틱 컵을 소재로 한 회화적 표현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회적인 일상의 플라스틱 컵이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것에 주목하여 플라스틱 컵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표면상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로 비치지만 사실상, 소비사회의 부수적인 모습으로 스쳐 지나거나 버려지는 소외된 대상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체화시키는 작업이다.

애써 외면하려는 상황과 소외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하며 직접 주인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무수히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므로 향후 환경과 예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현실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

1. 서론

본 연구자는 문득 길을 걸어가다가 구석 한편에 모여있는 플라스틱 컵들을 보고 쓸모 있게 태어나 버려진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본인의 그림으로 소외된 것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로 보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는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일상 속의 없어서 안 될 일상용품이 되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배경에 놓고 마치 주인공처럼 그림을 그리며 본인이 감독이 되어 영화의 수많은 엑스트라처럼 외곽부에 미약하게 자리 잡고 있어 주목되지 않는 대상을 주연으로 삼고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방법론을 취하며, 소외된 대상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작업을 한다.

플라스틱 컵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기능적인 용도의 컵일 뿐 이었다. 이 물건을 어딘가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고 작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 연구자가 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2. 본 론

1. 작품의 주제

본 연구자의 작품은 길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줍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 나무, 자동차만큼, 어쩌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쓰레기이다. 그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컵은 눈에 띄게 많이 버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컵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물건이 되었다.

플라스틱의 생산은 편리성을 주는 일회용품을 과생시키며 빠른 소비 문화와 만나 생산과 소비는 더욱 가속화되고 일상용품이 되었다.¹⁾ 카페의 ‘테이크 아웃’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길을 걸으며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다 마신 컵을 길거리에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쓸모를 다 하고 버려진 것들, 소외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적 요소에도 집중하며 환경에 대한 ‘생각 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생각 중’의 상태가 지속되어 쌓여갈 때 환경에 대해 무관심했던 작가 스스로도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도움닫기 지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 작품의 표현

2.1 이미지의 재현적 표현

원본을 닮게 하는 것은 재현의 제 1법칙이다. 그러므로 원본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닮았는지를 따지는 유사성은 재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회화를 자연 대상에 대한 모방으로 보거나 인식의 기록으로 보는 미술사에서 재현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상을 최대한 흡사하게 그려내는 과정이다.²⁾

본 연구자가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플라스틱 컵의 형태는 모두 원기둥 형태의 같은 모양의 컵들이다. 이 컵들을 본 연구자가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1) 원선금, “일회용품을 오브제로 활용한 조형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1), p. 1

2) 박은수, “현대회화의 재현적 표현에 관한 연구 = Study on A new viewpoint of Reproduction-expression arts”, (석사 학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 4

캔과 컵이라는 용기는 음료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화려한 포장재, 즉 반짝이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눈에 띄는 컬러로 인쇄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그 내용물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처치 불가능한 상태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작업에서 사실적인 방식으로 확인시키고자 하였다.



S.T.I.C, 2022, oil on canvas, 90.9x72.7cm

작품의 제목을 정할 때는 Plastic의 철자를 분해하고 조립하여 짓는다. 작품 <S.T.I.C>의 제목은 Plastic의 단어에서 pla와 stic으로 나눈 것이다. 똑같은 플라스틱 컵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으며 작품에서 비슷하게 보여지는 플라스틱 컵들의 차이점을 제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품 <S.T.I.C>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직접 배치하여 사진을 찍고 작업한 것이다. 플라스틱의 투명함을 보여주기 위해 배경은 무채색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느낌이 강하다.

중심에 있는 구겨진 플라스틱 컵과 '투썸플레이스' 로고, 컵의 뚜껑, 빛의 비침을 중심으로 작업하였으며 특히 플라스틱의 재질이 밝음과 어둠이 명확하지 않아서 배경에서 사용된 색으로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색을 찾아 색감의 미묘한 변화에 집중하였다,

2. 2 배경을 이용한 상반된 표현

19세기 당시 사진기의 발명은 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발명된 사진기로 인하여 당시 미술의 한 사조였던 리얼리즘을 추구해 온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밀한 재현의 기법이 작가나 관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화가는 새로운 리얼리즘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³⁾ 19세기 이후 리얼리즘의 개념이 빠르게 발전하였고 사진의 영향을 받아 포토 콜라주가 발명되었다.

포토 콜라주는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자의 변형된 표현 방식은 사진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콜라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화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데 플라스틱의 사실적 표현은 유지하되 배경에 화려한 색을 넣고 팝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플라스틱과 어울리지 않는 배경에 두었으며 플라스틱에 배경이 비춰지지 않고 무채색의 색감으로 그려내어 마치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하여 플라스틱을 주인공으로 각인시키도록 표현하였다.



LV-cup, 2023, oil on canvas, 116.7x90.9cm

작품 <LV - cup>은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배경에 루이비통의 로고를 넣었다. 명품 로고와 무채색의 플라스틱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명품 로고에 플라스틱을 중심에 두어 마치 명품이 된 것처럼 나타내고 싶었으며 명품 로고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선망하고 눈길을 끄는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3) 황희정,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토콜라주(1982-1986)에 나타난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2) p.9

3. 결 론

작품론을 통해 본인의 작품 주제를 살펴보았으며 일회적인 플라스틱 컵을 관찰하여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것에 주목하여 플라스틱 컵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폐기물이 되어버린 화려한 포장재들은 요즘 매일같이 마스크에서 접하게 되는 것처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위협하게 된 상황임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순간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위해 이를 망각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 표현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작품론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대해 재정립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캔, 비닐 등과 같이 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작업의 폭을 넓혀 조형, 영상의 방법도 연구하며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4. 연구 작품



[도판1] S.T.I.C., 2022, oil on canvas, 90.9x72.7cm



[도판2] P.T.A.C., 2022, oil on canvas, 90.9x72.7cm



[도판3] 초록별, 2022, oil on canvas, 100x80cm



[도판4] No.7, 2022, oil on canvas, 53x40.9cm



[도판5] S.L., 2022, oil on canvas, 53x40.9cm



[도판6] LV-cup, 2023, oil on canvas, 116.7x9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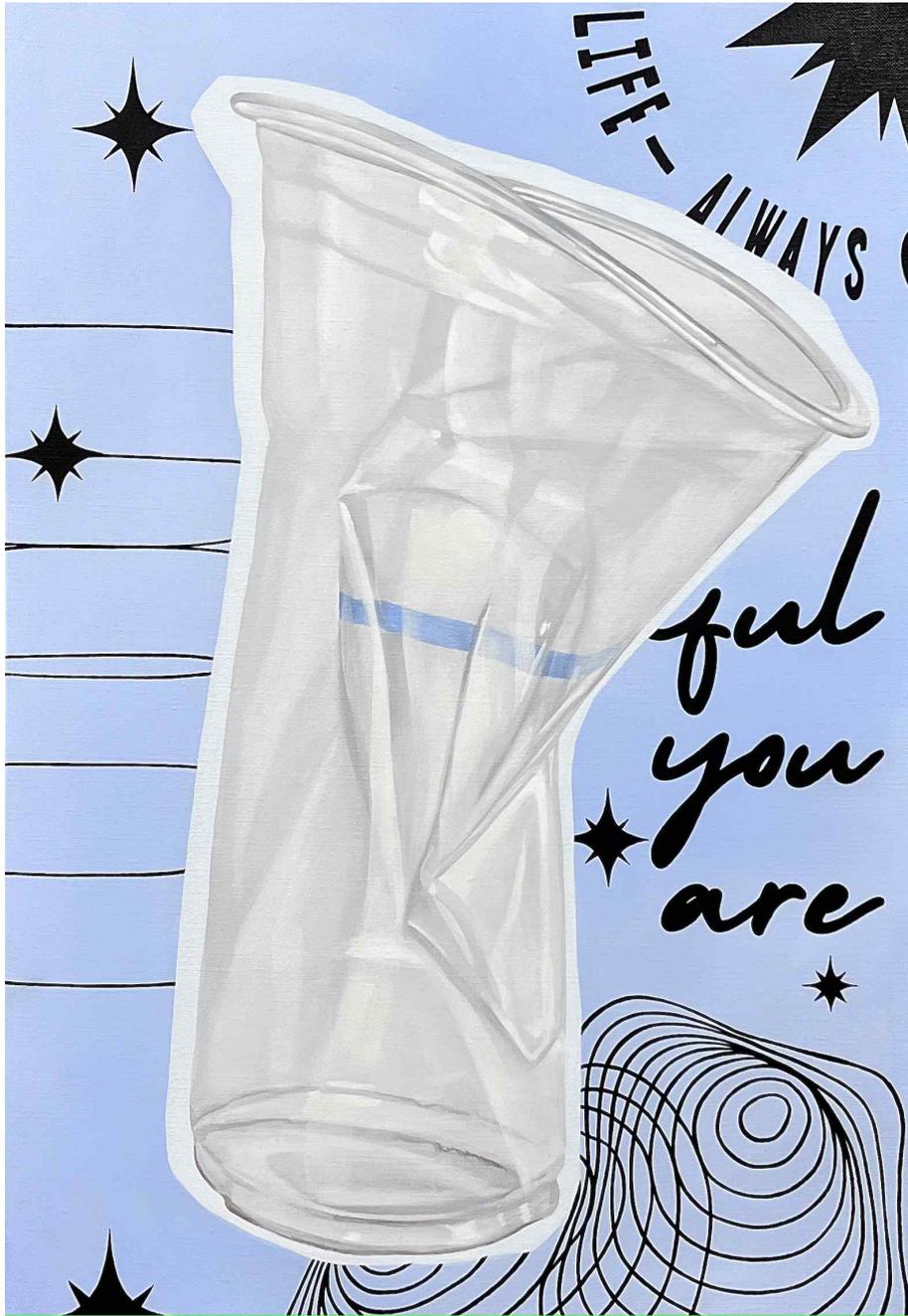
[도판7] 리브곰, 2023, oil on canvas, 72.7x60.6cm



[도판8] Give Love, 2023, oil on canvas, 72.7x50cm



[도판9] Black Mood, 2023, oil on canvas, 72.7x53cm



[도판10] Blue Star, 2023, oil on canvas, 72.7x50cm



[도판11] Pop, 2023, oil on canvas, 72.7x50cm



[도판12] Earth, 2023, oil on canvas, 35x27.3cm



[도판13] Look at me, 2023, oil on canvas, 90.9x72.7cm

참 고 문 헌

<학위 논문>

원선금, “일회용품을 오브제로 활용한 조형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1), p. 1

박경애, “하이퍼 리얼리즘 연구 : 보드리야르의 하이퍼 리얼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4) p. 1

황희정,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토콜라주(1982-1986)에 나타난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2) p.9

도판 목록

[도판1] stic, 2022, oil on canvas, 90.9x72.7cm

[도판2] ptac, 2022, oil on canvas, 90.9x72.7cm

[도판3] 초록별, 2022, oil on canvas, 100x80cm

[도판4] no.7, 2022, oil on canvas, 53x40.9cm

[도판5] s.l, 2022, oil on canvas, 53x40.9cm

[도판6] LV-cup, 2023, oil on canvas, 116.7x90.9cm

[도판7] 러브곰, 2023, oil on canvas, 72.7x60.6cm

[도판8] give love, 2023, oil on canvas, 72.7x50cm

[도판9] black mood, 2023, oil on canvas, 72.7x53cm

[도판10] blue star, 2023, oil on canvas, 72.7x50cm

[도판11] pop, 2023, oil on canvas, 72.7x50cm

[도판12] earth, 2023, oil on canvas, 35x27.3cm

[도판13] look at me, 2023, oil on canvas, 90.9x72.7cm

English Abstract

A retrospective representation of plastic cups —Focusing on my own work—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my works, in which the disposable plastic cups in everyday life have been turned into the main character by observing and shedding light on how they are discarded and neglected.

Although on the surface, they may appear to be works that talk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they are in reality works that bring marginalized objects into focus, which are being glimpsed over or discarded as by-products of consumer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focusing on situations that people try to ignore and things that are marginalized in making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k, I seek to create various works that include drawings, photographs, and scrapbooks, and sublimate into works of art, the countless wastes discard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thereby exploring the direction which the environment and the arts should take in the future. I also seek to show the reality of the environment in which we live in.